

임신하려면 술 완전히 끊어야 한다

**임**신하고자 하는 여성은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국립대학병원의 티나 예센 박사는 영국의 의학전문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여성은 주량이 얼마 되지 않아도 일단 술을 마시면 임신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예센 박사는 아기를 갖고자 하는 20~35세의 부부 4백 30쌍을 임신에 성공할 때까지 지켜본 결과 일주일째 술을 마시는 양이 5잔 이하인 여성은 6개월 안에 임신할 가능성이 64%, 5잔 이상인 경우는 55%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센 박사는 그러나 술을 끊고 전혀 입에 대지 않으면 임신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예센 박사는 이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음주-임신관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적당히 마시는 술은 임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예센 박사는 술을 아주 소량 마시는 여성도 임신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멘스주기중 임신이 가능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술을 마시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예센 박사는 알코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밀도를 떨어뜨려 배란을 억제하며 동시에 나팔관을 통한 정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고 밝히고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술을 자주 마시거나 많이 마시는 여성은 멘스장애가 나타나거나 멘스주기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았다고 예센 박사는 밝혔다.

예센 박사는 남편이 일주일째 5잔 이하의 술을 마시는 경우 아내의 임신확률은 64%로 5잔 이상인 경우의 58%에 비해 역시 높았지만 이는 통계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에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보면 알코올은 정자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센 박사는 조사대상자들이 마시는 술의 종류는 대개 아내의 경우 포도주이고 남편은 맥주였지만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신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술외에 흡연, 커피, 홍차, 초콜릿 등도 임신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센 박사는 덧붙였다.

예센 박사는 또 임신중에도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임신중 음주는 유산(流産), 태반조기박리(胎盤早期剝離), 조산(早産), 사산(死産)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통신)

우유, 유아변비 유발 위험 크다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면 유아변비가 생길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팔레르모대학의 쥘세페 이아코노 박사는 미국의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만성변비 증세가 있는 생후 11~72개월

된 유아 65명에게 우유 대신 두유를 먹이기 시작한 결과 68%에서 변비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아코노 박사는 우유를 먹는 아기들은 심한 항문열상이 나타나기 쉬우며 이로 인한 배변의 아픔 때문에 결국 변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아코노 박사는 유아변비는 심리적인 원인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유가 주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 미국 아이오와대학의 베라레닝-바우케 박사는 설사제를 투여하고 식이성 섬유 섭취량을 늘려도 변비가 멎지않는 아기에게는 우유를 끊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중 약 7.5%는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며 이는 구토, 설사,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습진을 유발한다는 연구보고서도 최근 발표된 일이 있다.

1987년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는 생후 22개월된 아기중 16%가 변비를 겪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연합통신)